



올 지구촌 스포츠 피겨 퀸 '연아의 해'

세계 최고 권위 올해의 선수상 등 3개부문 수상... 소녀가장 5000만원 후원도

'피겨 여왕' 김연아(20·고려대)가 미국스포츠아카데미(USSA)가 뽑는 '올해의 선수' 여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USSA는 지난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연아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2010년 최고의 여자 선수로 뽑혔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USSA는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김연아를 비교하면서 "나달이 그의 종목을 지배했다면, 김연아는 그녀의 종목을 지배했다."
이 세계 최고의 스케이팅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을 뿐 아니라 신체 점재도 아래서 최초로 200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USSA는 구체적인 득표 수는 밝히지 않았

지만 "김연아가 이번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USSA가 매달 자체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로 뽑히면서 김연아는 자동으로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
김연아는 테니스 스타 킴 클리스터스(벨기에)와 서리나 윌리엄스(미국), '스키 여왕' 린제이 본(미국)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경합을 벌여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김연아는 지난 10월에도 아시아인 사상 처음으로 여성스포츠재단이 제정한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 뽑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남자 부문 '올해의 선수'로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첫 우승을 이끈 골잡이 다비드 비야가 뽑혔다.
김연아는 또 이날 미국 시카고 지역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이 뽑은 2010년 10명의 MVP중 하나로 뽑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김연아를 뽑으면서 "한국의 꿈을 이뤄줬을 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올림픽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꿈 이상을 이뤘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신문은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내야수 폴 코너코 등을 비롯해 10명의 MVP중 6명을 시카고 지역 선수들로 뽑았다. 김연아는 미국인이 아닌 선수 중 유일하게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한편, 김연아가 국제선수대회를 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김연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녀가장 5명에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했다"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훈련을 하는 김연아를 대신해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가 24일과 27일 해당 학생들을 찾아 후원금과 연아 테디베어 등 선물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 백넘버로 심기일전"

윤석민 28→21번 손영민 21→11번
KIA 선수들 번호이동 분주

새해를 앞둔 호랑이들이 번호이동이 한창이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은 올 시즌 입단과 함께 했던 20번 대신 28번을 백넘버로 달았다. 28번은 윤석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사용하는 번호.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왔던 만큼 '심기일전'해 2010시즌 화려한 비상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선택한 변화였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과 달리 올 시즌 입단 약재에 시달린 윤석민은 새로운 번호 21번을 노리고 있다. KIA의 잠수함 번호 19번을 군에서 제대한 신용운에게 내주고 21번을 달았던 손영민도 번호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손영민이 신청해 놓은 번호는 11번.
하지만 손영민이 원하는 11번을 등에 달게 될지는 미지수다. 11번은 KIA에게는 조심스러운 백넘버이기 때문이다.
11번은 해태시절 김성환을 대표하는 백넘버였지만 번호를 물려받은 '영원한 아기호랑이'

투수 김상진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KIA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번호가 됐다. 김상진의 진흥호 선배 이대진이 후배의 몫까지 던지겠다고 11번을 달았지만 부상에 시달린 끝에 '후배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며 번호를 반납하기도 했다.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손영민은 11번을 달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각오지만 코칭스태프의 최종승인이 있어야 한다.
16번을 놓고는 투수와 야수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16번은 '수비의 달인' 김종국 코치를 상징하는 백넘버였지만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가을 상무에서 제대한 김주형이 16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김주형은 고교특급 파워히터로 주목을 받았던 동성고 시절 16번을 달고 뛰었다. 상무에서도 16번을 달면서 애정을 보였지만 선배인 투수 김희걸이 16번을 '찜'하면서 16번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투기' 투수 한승혁과 홍건희에게는 66번과 43번이 프로 첫 번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패스 어디로 주지?
28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의 경기. 울산 모비스 김중근(오른쪽)이 서울 SK 주희정 앞에서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에 도전하는 아사다 주특기 트리플악셀 맹훈

올 시즌 점프 균형이 무너져 고생해 온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가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세 번의 트리플 악셀(3회전반 점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치러진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은 아사다는 27일 나가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아사다가 말한 '세 마리 토끼'는 쇼트프로그램에서 1차례, 프리스케이팅에서 2차례 등 모두 세 번의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뛴다는 뜻이다.
예전부터 트리플 악셀 점프를 주특기로 삼아 온 아사다는 올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고난도 점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정 규정을 바꾸자 트리플 악셀을 세 번이나 뛰는 것을 목표로 훈련해 왔다.
트리플 악셀의 기본 점수가 8.2점에서 8.5점으로 뛰어오른 만큼 아사다가 세 차례 모두 성공한다면 20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도 은메달에 그쳤던 아사다로서는 주특기를 최대한 살려야만 김연아(20·고려대)의 환상적인 연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아사다는 새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점프가 완전히 망가져 두 번의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8위와 5위에 그치는 최악의 성적을 냈다.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면서 어렵사리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어냈지만 쇼트와 프리에서 감점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의 역도 선수에 장미란·전상균

올해 한국 역도를 가장 빛낸 선수에 장미란(27·고양시청)과 전상균(29·한국조폐공사)이 선정됐다. 대한역도연맹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텔에서 삼일 이사회를 열어 장미란과 전상균을 '2010년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은 지난날 광주우 아시안게임 여자 75kg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해 주요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아시아의 역사' 김태현을 잇는 남자 최중량급(+105kg)의 강자 전상균은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활약했다.
남녀 우수선수에는 김민재(27·경북개발공사)와 김수경(25·제주도청)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양현종 1억7000만원 '연봉 대박'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1억7000만 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KIA 타이거즈는 28일 양현종과 1억원에서 7000만원 인상(70%)된 1억7000만 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승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자릿수 승수를 기록했던 양현종은 올 시즌에는 4.25의 방어율로 16승8

패를 거두며 다승 2위에 올랐다.
양현종은 "올 시즌 동료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국가대표로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등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팀이 4강에 실패해 아쉬웠던 한 해이기도 하다"며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팀의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는 양현종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2011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2명 중 48명과 재계약을 맺었다. 미계약자는 투수 한기주·김희걸 야수 김상훈·이윤규 등 4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침대-100% ITALY

소파-100% ITALY

엔틱좌탁-100% ITALY

엔틱식탁-100% ITALY

H561 6-12인 식탁
180-230-280x100x76cm
컬러: 흑자갈색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상무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흥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2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